

‘화물 특수’ FSC 날고, LCC 적자행진... 실적 양극화 심화

항공업계 3분기 성적표 희비

대한항공 영업이익 5671% 증가
아시아나도 영업이익 2680% 늘어
발 빠른 화물 운송기 전환 대응

제주항공·에어부산 등 LCC업계
진에어 제외 영업손실 적자폭 ↑
다양한 프로모션 통해 반등 노력

국내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간 실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형 항공사는 화물 수요에 힘입어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객 수요에만 의존하는 LCC는 여전히 실적 개선에 힘겨운 모습이다. 다만 전 세계가 워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하면서 LCC 업계도 조금씩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흑자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항공기.

매출 2조2270억원과 영업이익 438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대비 44%, 5671% 증가한 수치로, 6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의 분기 영업이익이 4000억원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3분기 매출 1조360억원, 영업이익 160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1.7%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680%나 증가해 큰 폭의 흑자를 이뤘다.

두 항공사의 실적 개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여객 수요가 감소하자 빠르게 여객기를 화물운송기로 전환하면서 대응한 부분이 크다. 두 항공사 모두 3분기 역대 최대 화물 실적을 내며 ‘화물 특



제주항공 항공기

수’를 누렸다. 대한항공 3분기 화물사업 매출은 1조6503억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 매출실적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화물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56% 증가한 7,545억원으로, 이는 화물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반면 LCC 업계는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3분기 매출 682억원, 영업손실은 913억원을 기록했고, 진에어 역시 매출 606억원에 영업손실 445억원을 기록했다. 티웨이항공은 매출 530억원과 영업손실 390억원, 에어부산은 매출 399억원에 영업손실 513억원을 나타냈다. 매출은 모두 증가했지만 진에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영업손실 적자폭이

확대됐다.

LCC업계는 이같은 실적 악화를 벗어나기 위해 워드 코로나에 맞춰 국제선 운항재개와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제주항공은 오는 25일부터 인천~괌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이번 운항 재개는 관광 목적의 부정기 운항이다. 제주항공은 이번 운항 재개를 시작으로 괌 노선에 대한 정상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또 제주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부산-사이판 노선 재운항도 시작한다.

에어부산은 오는 27일부터 부산-괌 노선을 매주 토요일 주 1회 운항한다. 에어부산의 이번 운항 재개는 지난해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 중단 이후 재개되는 첫 관광 노선이다. 에어서울은 다음달 23일부터 인천-괌 노선을 매주 목·일요일 주 2회 일정으로 재취항한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7월 인천-사이판-괌 노선 운항을 재개하며 항공권 할인, 위탁 수하물 추가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했다.

또한 LCC 업계는 2022학년도 대학 수험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제주항공은 탑승일을 기준으로 오는 11월 18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국내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수험생 본인 30%, 동반자 1명 15%의 할인이 적용된다. 수험생 할인 항공권 예매는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앱과 웹에서만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제주항공은 자사가 운영하는 호텔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서울현대 호텔도 수험생을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티웨이항공은 국내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수험생 본인에 한해 국내선 왕복 예약 시 스마트운임의 20% 할인을 제공한다. 적용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며, 탑승 기간은 11월 18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이다.

LCC 업계 관계자는 “LCC 업계의 매출과 직결되는 국제선 여객 수가 회복하지 않으면 당장 실적 개선은 힘들 것”이라며 “워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4분기 눈에 띄는 성장을 기대하긴 이르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로템, 2078억 대만 도시철도사업 수주

카오슝 레드라인 북부연장 터키사업
전동차·전력, 전차선 분야 등 공급

현대로템이 대만에서 2078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로템은 16일 대만 카오슝시 도시철도국(KMRTB)에서 발주한 2078억원 규모의 카오슝 레드 라인 북부연장선 터키 사업을 싱가포르 STEE와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레드 라인을 9.3km(6개역사) 연장하는 것으로, 현대로템은 전동차와 전력, 전차선 분야를 공급한다.

카오슝시는 인구 약 280만명으로, 대만 남서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항구 도시다. 대만에서 ‘제2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도시철도의 역할이 중요한 곳이다. 현대로템이 수주한 레드 라인은 시내를 수직으로 관통하면서 카오슝 국제공항과 기차역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다.

현대로템이 공급하는 이번 전동차는



대만 카오슝 전동차 외관 조감도

기존 노선과의 호환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쾌적한 실내 공기를 자동 공급하는 공조 장치를 추가했다. 비상시 급제동 능력을 강화하는 등 탑승객 안전과 편의를 살피는 기술도 적용됐다.

전동차는 시속 80km로 운영된다.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한 열차 종합 관리 시스템 TCMS가 적용된다. TCMS를 활용하면 차량기지에서 차량 상태와 고장 정보를 자동 분석 가능해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고효율 운행 패턴 분석으로 에너지 절약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다.

현대로템의 E&M이 적용될 레드라인은 향후 2차 연장도 계획돼 있어 전동차 및 E&M 사업 추가 수주 가능성도 기대된다. 3.78km(2개역사) 구간을 더 늘리는 2차 연장안이 확정되면 전동차가 추가로 레드 라인에 투입된다.

현대로템은 이번 수주로 대만 철도 시장 공략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계약한 레드라인 북부연장선뿐만 아니라 카오슝시의 레드 라인 남부연장선과 순환선 개념인 옐로우 라인(Yellow Line) 신선 사업이 예정된 만큼 이번 수주를 통해 쌓은 현지 당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도 바라볼 수 있다. 나아가 최근 노후 철도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의 철도 시장에도 현대로템의 영향력을 한층 더 높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KN와 파트너십 체결 자율이동로봇 공급처 다변화 추진

차별화된 AMR 공동제작 추진도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이 국내 자율이동로봇(AMR) 전문기업 KN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KN은 무사이니, HIK 로봇 등 다수의 해외 AMR 업체와 제휴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국산 AMR도 생산하는 기업이다. 또 제휴 업체 제품들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AMR 시장점유율 1위인 중국 킷플러스 제품의 국내 공급

을 맡고 있는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과 신속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양사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AMR도 공동제작할 계획이다.

AMR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피킹과 이송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 AMR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9000억원에서 2030년까지 약 55조 2700억원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권영수, 전세계 직원들과 직접 소통한다

LG엔솔, 전직원 참여 ‘엔톡’ 개설
직원들 의견·애로 상시 청취·반영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전 세계 2만 4000여명의 직원들과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6일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대표(부회장)와 전 세계 직원 2만 4000여명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채널 ‘엔톡(EnTalk)’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엔톡을 통해 임직원이 최고경영자(CEO)에게 궁금하거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 등의 의견을 직접 등록하고, CEO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즉각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은 7일 내, 추가 개선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엔 유관 부서 논의를 거쳐 한 달 내 각각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엔톡은 CEO가 직원의 의견과 애로 사항을 상시로 듣고 활동에 반영해 기

존대면 보고, 회의 문화 등 비효율적 과정을 개선하고 ‘즐겁고 행복한 직원 경험’을 통해 젊은 직원과 CEO 간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고자 기획됐다.

엔톡은 임직원들이 대표에게 건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대화 채널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LG에너지솔루션 직원 80% 이상이 MZ세대인 점을 반영해 엔톡이라는 명칭과 디자인 모두 직원 의견을 수렴했다. 글로벌 직원이 대상인 만큼 중국어, 영어, 폴란드어 등 현지어로도 구성했다.

온라인 소통 창구 개설은 최근 권 부회장이 MZ세대 직원으로 이뤄진 주니어보드 멤버와의 자리에서 “CEO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가장 먼저 도입한 제도다. /양성운 기자

삼성, 갤럭시 최신기능·보안성 대폭 강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시
‘원 UI4’ 갤럭시 시리즈 순차 확대

갤럭시가 UI를 또 업그레이드했다. 커스텀 기능을 확대하면서도 보안을 대폭 높였다

삼성전자는 15일 갤럭시 제품 대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향상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는 ‘One UI 4’ 공식 론칭 ▲갤럭시 워치4의 최신 기능을 이전 버전

의 제품에 확대 적용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원 UI4는 새로운 사용자 옵션,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갤럭시 에코 시스템 접근성 확대 등 향상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한국,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갤럭시 S21 시리즈’부터 적용됐으며, ‘갤럭시 Z 시리즈’, ‘갤럭시 S 시리즈’, ‘갤럭시 노트 시리즈’, 태블릿 등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One UI 4’ 사용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색상 팔레트를 사용해 홈 화면, 아이



갤럭시 워치 시리즈

/삼성전자

콘, 알림, 배경화면 등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워치도 사용자 맞춤 기능을 더 강화해 쉽게 디자인과 표시 정보를 설정 가능하다.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공유할 항목과 비공개할 항목을 쉽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용 기자 juk@